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2008.12.1~2009.1.7
홈페이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062)973-5100

제1821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1월 19일 (음력 10월 22일) 수요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사업 '눈 가리고 아웅'

정부 주장 '호남 37조 〉 영남 22조' 알고 보면 '호남 12조 〈 영남 22조'

국토해양부가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향후 37조원을 투입하는 등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신규 사업 예산은 영남권의 절반 수준에 그쳐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정부는 전북의 새만금 신항 개발 10조원, 동남권의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18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30대 선도 프로젝트 예산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개 권역 30개 사업에 총 118조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 5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는 37조2천600억원을 투입, 7개 권역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반해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에는 10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22조500억원이 투입된다.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 예산 규모가 대경권과 동남권 등 영남지역 선도 프로젝트 사업 예산에 비해 15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배정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호남권 선도 사업 5개 가운데 3개(새만금 개발, 여수엑스포 지원, 호남고속철도 건설)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며 예산 규모도 전체의 70%인 25조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신규사업은 서남해안 연육교 건설, 광주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2개에 불과하며 예산도 1조6천1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 사업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착공하는 새만금 신항 및 군산공항 확장 사업 등을 포함하더라도 신규 사업 예산은 12조8천900억원에 불과, 전체 선도 사업 예산의 3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남지역의 대경권과 동남권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일부는 과거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신규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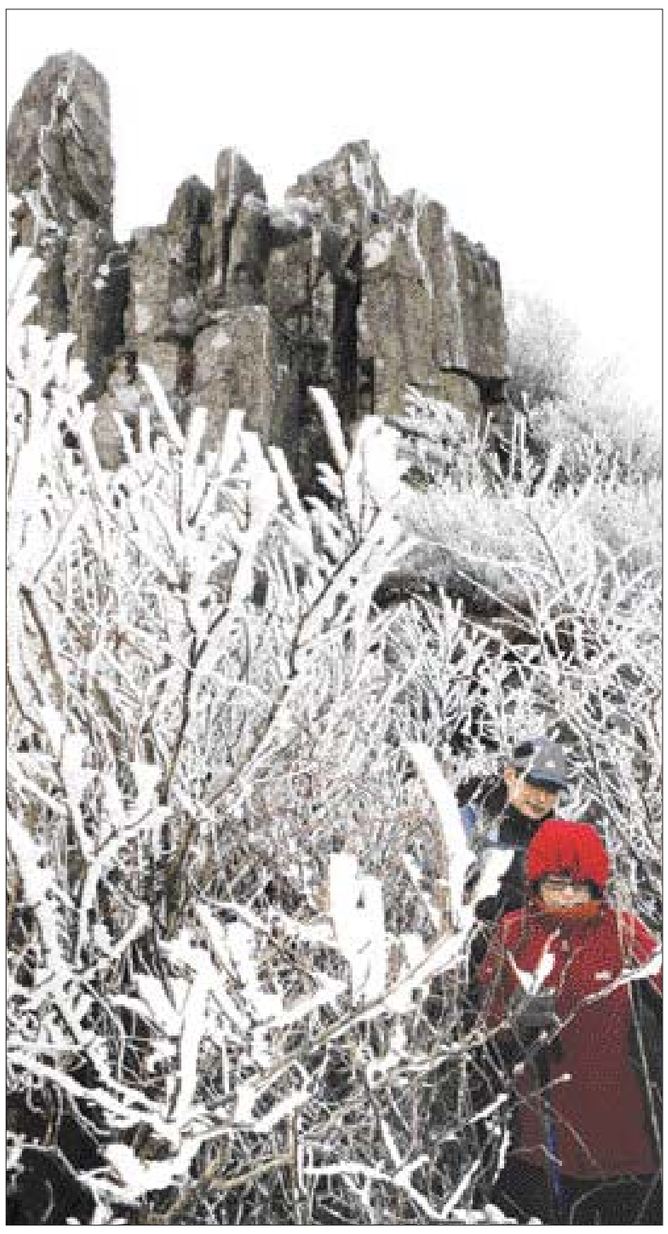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대경권과 동남권의 선도 사업은 모두 신규로 추진하거나 과거 정부에서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기투입된 예산은 1천351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즉, 22조원의 예산이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남지역에서는 과거 정부의 계속사업과 현 정부의 신규 사업을 병행 진행시키면서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는 반면 호남권은 신규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는 전북 새만금 신항 건설에 10조원을, 동남권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에 2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능이 중첩되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양항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은 그 자체가 사실상 오류 투성이"라며 "국토부의 계획대로 선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호남의 경제적 낙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무등산 눈꽃 '활짝' 18일 광주·전남지역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광주 무등산에 서설(瑞雪)이 내렸다. 무등산 누에봉 부근 나무군락이 흰 눈꽃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첫 눈

광주·전남 영하 추위

광주·전남지역이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에 들어선 가운데 18일 광주와 목포 등 일부지역에서 첫눈이 내렸다. 이번 추위는 20일까지 지속된 뒤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0.3도를 기록했으며, 나주 −2.7도, 화순 −2.6도, 신안 −2.1도, 장흥 −1.6도, 진도 −1.6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또 이날 광주는 적설량을 기록할 정도의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눈발이 날렸으며, 진도 1㎝, 목포 0.2㎝의 적설량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새벽 5시 광주를 비롯한 목포·장성·무안·함평·영광 등 6개 지역에 대설예비특보를 발효했다. 또 완도, 신안 흑산도·홍도에는 강풍주의보,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해상에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와 전남 서해안 지역의 예상 적설량을 3~10cm, 전남 내륙 지역 2~7cm, 전남 남해안 지역은 1~3cm로 예상했다. 또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일부 지역에는 5~10㎜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0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추위는 20일까지 계속되다, 21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 330점 선

전남대 의예과 375점 돼야 지원

대성학원·종로학원 배치 기준표 ▶ 9면

서울대 의예과는 수능 원점수(400점 만점 기준) 387점 이상, 전남대 의예과는 375점 이상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 지원가능선은 370점, 광주지역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는 330점 선으로 예측됐다.

서울 대성학원과 종로학원 등이 내놓은 배치기준표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 382점을 비롯, 연세대 의예과 386점, 고려대 의예과 382점 등이 지원가능 점수로 분류됐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375점, 생명과학부 371점, 수학교육학과 364점 등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점수 364점이면 서울대 수의예과,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포항공대 등에, 359점이면 서울대 건축학과, 고려대 생명과학계열학부, 연세대 생명과학공학부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 의예과가 375점으로 자연계열 중 가장 높은 점수대를 형성했으며, 전남대 수학교육과 354점, 수의예과 350점, 간호학과 337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대는 올해 신설된 기초의과학부가 328점으로 자연계열 중 가장 높은 점수대를 형성했다. 수학교육과 317점, 간호학과는 303점 등으로 분석됐다.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경영대가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와 연세대 경영계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및 사회과학계열의 지원가능 점수가 377점이었다. 372점이면 서울대 인문계열 Ⅰ, 고려대 경영대,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연세대 자유전공학부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 364점이면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비롯한 성균관대 자유전공학부, 고려대 인문학부, 연세대 외국어문학부 등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 국어교육·영어교육·초등교육과와 광주교대가 339점 이상, 전남대 영어영문학 및 역사교육과 등은 329점, 전남대 일반학부와 행정학과, 조선대 영어교육학과 등은 320점 이상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입숙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 장기화

문화전당 공사 차질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논란의 장기화로 문화전당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4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참가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내 도청 별관 관련 시민대 토론회'가 18일 오후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별관 철거 입장에 선 패널들과 추진단은 ▲별관 철거 후 상징물 건립 ▲별관 일부 철거 후 통로(아치형 통로)활용 ▲별관 철거 잔해 도심 전시 ▲별관 축소 모형 전시 등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옛 도청 별관 논란의 유일한 해법은 보존을 전제로 한 문화전당의 설계 변경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해법이 도출되지 않은데다 워낙 찬·반 양측의 입장차가 커 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문화전당 조성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윤광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한번 없어진 문화 사적지는 영원이 회복될 수 없다"며 "추진단이 공사차질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5월 정신을 계승·보존하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별관을 보존하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추진단은 별관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전당 부지에 대한 터파기 기초공사가 오는 20일까지 마무리돼 2단계 흙막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더 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부지에 대한 전체 흙막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토사붕괴 등 안전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6월부터 공대위가 별관 철거 반대 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도청 본관 등 5·18 광주항쟁 보존 공간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도 이미 무산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